모든 종도의 귀감… 참된 수행자이셨다

法語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만고휘연하처멱 萬古輝然何處覓고
두두물물현고풍 頭頭物物現古風이라.

만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고?
두두물물이 옛 고풍을 나툼이라.

설악의 주인이 적멸에 드니 산은 슬퍼하고 골짝의 메아리는 그치지 않고, 도의국사가 중국에서 해동海東으로 선법禪法을 전하고 만해萬海선사가 터를 닦은 설악산에 무산霧山대종사가 일거불출一去不出하여 선禪의 도량道場을 세웠습니다.

무산霧山대종사께서 남기신 팔십칠의 성상星霜은 선禪과 교敎의 구분이 없고,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에 걸림이 없던 이시대의 선지식의 발자취였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동진출가童眞出家하시어 치열熾熱한 정진으로 선과 교와 종무宗務를 두루 섭렵하시고, 오직 본분本分수행과 후학불사佛事와 불교문화 쇄신刷新을 평생의 원력願力으로 매진邁進하였습니다.

산중을 지혜와 덕망으로써 원융화합을 이루어 내고, 설악의 불교문화를 부처님의 정법正法으로써 세계의 문화로 발전전승發展傳承하고 전법포교傳法布敎로 화향回向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종도宗徒들의 귀감龜鑑이 되니 실로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이셨습니다.

雪嶽堂 霧山 大宗師 覺靈 前에

고목용음진견도 枯木龍吟眞見道요
촉루식진안초명 髑髏識盡眼初明이라.
소식진시희식진 消息盡時喜息盡이늘
당인나변탁중형 當人那辨濁中淸고?

마른 나무에 용이 소리를 내니 참으로 도를 봄이요,
해골 빼다구에 분별이 다하여야 진리의 눈이 처음 밝음이라.
소식이 다한 때에 기쁜 소식이 다했거늘,
마땅히 사람들이 어찌 이 탁한 가운데 맑은 것을 가릴고?

주인 적멸에 든 설악산 슬픔에 잠겨

永訣辭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지난 밤 雪嶽山이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곡물도 울먹이며 지나갔고 새들도 길을 잃고 슬픔을 참지 못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森羅萬象이 무릎을 꿇고 슬퍼하는 것은 이 山中의 主人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大淸峰에 홀로 앉아 꽃피고 새가 울면 아름다운 서정과 깊은 禪旨로 雪嶽의 眞景山水를 노래하였습니다.

낙엽이 물들고 떨어지면 내려놓음의 省察로 우리를 일깨우고, 눈보라치고 칼날선 바람이 불 때면 一機一境으로 禪旨를 풀어내던 霧山大宗師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두고 無生의 세계로 還歸本處하셨습니다.

온갖 障 ㎒와 고통으로 얼룩진 四大를 逍脫하고 無生法忍을 증득하여 法界의 自由人이 되셨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거둔 것은 生滅이 없는 本分을 나투기 위함이요.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그친 것은 나고 죽음이 없는 生死의 틀을 바꾼 것입니다.

스님! 비록 寂滅의 깊은 곳에서 解脫의 安樂을 누리고 계시더라도 無生의 한소식을 한번 보이십시오.
여기 모인 大衆은 광소 소탈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이끌어주시던 그 禪容과 法音을 뵙고 들을 수 없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생동안 걸림없이 縱橫無盡, 가는 곳마다 圓通自在하셨던 그 一機一境을 보지 못해 가슴이 무너집니다.
生死自在한 機用으로 格外示蹟을 한번 보이십시오.

스님께서는 우리 宗門에 歸依하여 一念精進으로 自己命根을 밝히고 凡聖의 미혹을 떨쳐버렸고 迦葉坐를 틀고 앉아 엄메아는 틀에서 벗어나, 버리고 구하지 않는 趙州家風으로 一生을 百納의 삶을 사신 눈밝은 雲水였습니다.

스님이 남긴 業蹟은 깨달음의 價値로 빛날 것입니다.
百潭寺에서 無門關을 개설하여 빛바랜 禪門을 일으켜 세운 것도 스님이었고 역사 속에 묻혀있던 萬海를 일으켜 세워 平和와 正義, 그리고 生命思想을 전개한 것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성취한 깨달음과 大方無外한 禪旨는 산과 바다를 누르고 大機大用은 하늘높이 치솟았습니다. 밝은 眼目은 本分자리를 벗어난 일이 없고, 갈고 닦아서 이룩한 德行은 下心으로 이어져 밑바닥까지 自己를 내려놓았습니다.

특히 스님이 남긴 禪詩는 頓悟雷聲이었습니다. 우리 文學史에 이렇게 큰 울림은 없었습니다.

句節마다 담긴 禪旨는 우리 가슴을 울리고 一言一句마다 아름다움을 풀어내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영혼을 후려치는 ?杖子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雷聲 같았습니다.

이제는 生滅없는 世界에서 解脫의 自由와 安樂을 누리시고 오고감이 없는 大自在力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衆生을 깨우치소서.



설악 무산 대종사 열반송

天方地軸 氣高萬丈
盧張聲勢로 살다보니
온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억!

'涅槃' 불이 들어간다 진정한 무애로 돌아간다

5월 26일 원적에 든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의 다비식이 5월 30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봉행됐다. 불이 들어간다. 열반(涅槃)이다. 불생불멸, 육신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한 시절에 남긴 그의 말과 글은 흰 연기 되어 날아간다. 그의 설법이 무엇이든 불꽃을 보는 동안은 우리는 슬프리라. 수백의 만장이 무슨 소용이며, 수백의 조사가 무슨 소용일까. 진정한 무애로 돌아간 그 이름이야 그 사연을 보았겠지만 한 걸음을 사이에 두고도 볼 수 없는 우리는 그저 그의 이름을 불러볼 뿐.

고성 건봉사=박재완 기자







용대리 주민들 친가족처럼 챙겨

弔辭 정래옥 前 용대리 이장

큰스님! 23년 전 큰스님께서 백담사에 오셨을 때, 저는 이장으로서 백담사에 발걸음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마을과 주민들을 사랑과 덕으로 늘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큰 스님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장하고는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열마 나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장을 천동생으로 생각하고 살터이니 그리 알고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큰스님에게 온갖 사랑과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용대리 전체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큰스님의 비보를 접하고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큰스님께서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백담사에 계시면서 우리 용대리 주민들에게 덕과 올바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장학금을 주시고, 노인 복지에도 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도들이 큰스님 쓰시라고 용돈을 드리는 것을 푼푼이 모아 아낌 없이 용대리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시
며 마을 발전에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용대리가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천분의 일이라도 큰스님께 마음으로나마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훌쩍 떠나가시고 나니 그저 마냥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척 애통하기만 합니다.

큰스님! 이제 그동안 지고 계시던 무거운 짐을 홀가분히 벗어버리시고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셔서 푹 잘 쉬시기를 저희 용대리 주민들은 머리 숙여 기원드립니다.

저희들은 용대리 어느 곳을 가나 큰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돌아보며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겠사오니 이제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부터 대학생까지 '스님 그립습니다'

대종사 마지막 가는 길
이어진 각계 애도 물결

5월 26일 오후 5시 경 조계종 원로의원 설악 무산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에 빈소가 마련됐다. 장례가 진행되는 5일 동안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뤄졌다.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대종사와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대종사를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자신의 SNS에 "불가에서 '마지막 무애도인'으로 존경받으셨던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었다"며 대종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스님께선 서울 나들이 당시 저에게 한번씩 막걸리 잔을 건네 주시기도 하고 용돈을 쥘려주시기도 했다. 물론 묵직한 화두를 하나씩 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얼마 전 스님께서 〈아득한 성자〉 시집을 인편에 보내오셨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아뿔싸' 탄식이 절로 나왔다"면서 "언제 청와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제는 제가 막걸리도 드리고 용돈도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에도 생사일여, 생사를 초탈하셨던 분이셨으니 '허허' 하시며 홀홀 떠나셨을 스님께 막걸리 한잔 올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무산 대종사의 남모를 선행도 조명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 이하 대불련)는 5월 29일 성명을 통해 무산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큰 스님께서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에 나갔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들의 벌금 1억3천만 원을 대납하게 하시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대불련 측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당시에는 조계종 한 스님의 기부로만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무산 스님은 백담사가 있는 인제 산골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대학 재학 때까지 남몰래 장학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불련 역시 큰스님께 은혜를 입었다. 2012년 재정적인 어려움 당시 지원과 격려를 해주셨다. '아무 걱정 말고 잘 돌아가라'는 말씀은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었다"며 "큰스님께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대학생 청년들의 활동에 격려와 위로를 주셨다. 그 때 받은 격려와 위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남겨주신 선물로 여기고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 화두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신흥사 빈소에는 불교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조문이 이뤄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비롯해 총림 방장 · 원로의원 ·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무기관장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김진선 前강원도지사, 김진태 前검찰총장, 임채진 前검찰총장, 김희옥 前동국대 총장 등 각계 인사들도 조문했다. 특히 김진태 前검찰총장은 '설악산 위의 구름이요(雪嶽山上雲)/ 동해 물속의 달이라(東海水中月)/ 무산 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霧山何處去)/ 하계비가 꼭두각시를 비웃는구나(幻人嘲傀儡)'라는 게송을 지어 양양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에게 전달해 화제가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꽃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강화자작쑥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연봉 원기둥 7.0Φ×34cm / 원기둥 7.5Φ×29cm / 돈타레 5.6Φ×26cm / 일대 4.7Φ×24.5cm
연봉 원기둥 7.0Φ×34cm / 돈타레 5.6Φ×27cm / 일대 4.7Φ×25cm
연봉 원기둥 7.0Φ×34cm / 돈타레 5.6Φ×27cm / 일대 4.7Φ×25cm
6.5Φ×30cm / 5.9Φ×18cm / 향나무가루 1포 1kg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 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정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